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고품질 위생적인 돈육 생산에 힘쓰는 경기 평택시 청북면 “금형농장”



● 금형농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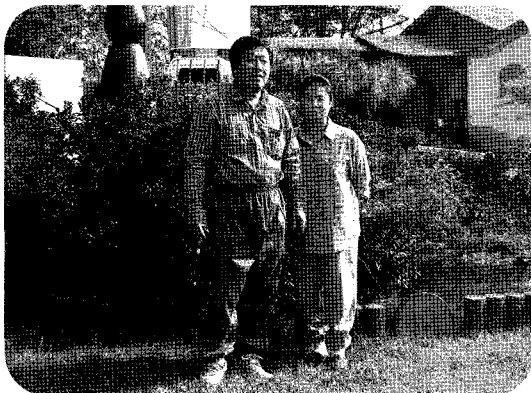
글 : 정재은 / 사진 : 오유환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와 환경관리로 돼지를 잘 길러 고품질의 위생적인 돈육 생산이 이루어질 때 양돈농가는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금형농장(사장 이계은, 50세)은 무동력 자동환풍기 등 과감한 시설투자를 하여 적정 온도와 환기를 유지해 나가며 돈사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통일

된 종돈도입과 단계별 적정 사료공급 및 한약재 첨가로 아이포크 브랜드 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으로 규격돈 출하가 이루어져 A·B 등급 출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금형농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위생적인 돈육 생산으로 수익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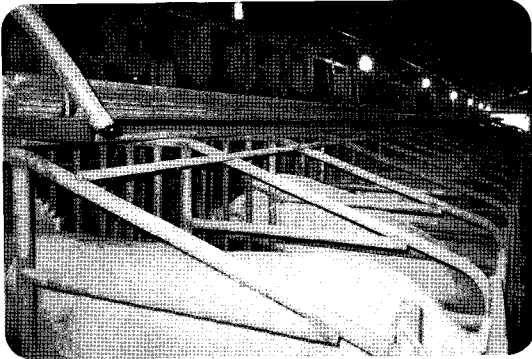
한편 이계은 사장은 11월 5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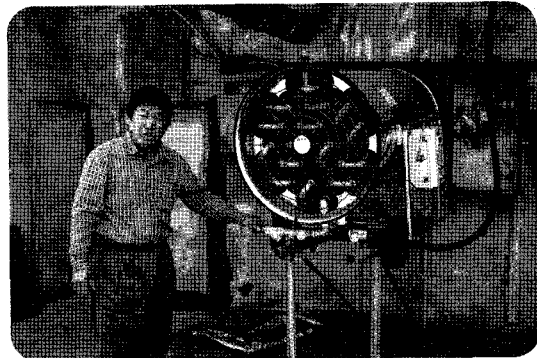
▲ 금형농장 이계은 사장(좌측)과 부인 지역자씨, 금형농장은 농장으로 들어오는 길에서부터 다양한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심어놓는 등 조경을 잘 해놓았다.



▲ 이계은 대표는 11월 5일 '제9회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우측부터 금형농장 이계은 사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부인 지역자씨, 본회 김웅진 평택지부장)



▲ 돈사내 전기전열장치인 알루미늄러를 설치해 더욱 효과적인 난방과 함께 기존의 경유 열풍기에 비해 유지비를 절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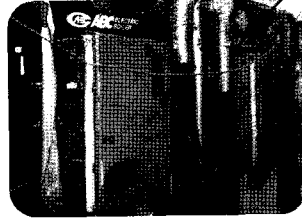


▲ 여름에 냉난방 열교환기를 통해 지하수를 냉각해 주면 돈사내 설치되어 있는 냉방시설을 통해 모든 개체마다 시원한 공기가 유입되어 더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에 진행된 '제5회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금형농장 현황 및 돈사구성

금형농장 이계운 사장은 경기 평택 출신으로 1984년도부터 모돈 1두로 양돈업을 시작했다. 자돈 전문 생산농가로 운영되었던 금형농장은 2000년도에 평택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이동이 어려워지자 육성·비육사를 새로 지어 일괄사육농장으로 변경하였다. 이계운 사장과 부인 지영자씨가 가족경영으로 농장 일을 해오고 있는 금형농장은 현재는 모돈



▲ 심야보일러, 심야전기를 이용해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60두, 전체 사육두수 1,700두 규모의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형농장의 돈사는 임신사 1동(120평), 분만사 1동(75평), 자돈사 1동(90평), 육성사 1동(120평), 비육사 1동(140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레파 돈사로, 분과 뇨를 분리하여 분은 퇴비로, 뇨는 액비로 처리하고 있다. 농장 안에 액비저장조가 비치되어 있으며, 청북면에 소재한 농협 퇴비공공처리장에서 고품분을 퇴비화 하고 있다.

과감한 시설투자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무동력 자동환풍기로 세심한 환기관리

올해 금형농장은 호흡기질병과 설사병에 걸리기 쉬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돈사내의 암모니아, 메탄가스 등 악취를 자동으로 뽑아내 적절한 환기를 할 수 있는 무동력 환풍기를 설치하였다. 무동력 환풍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기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강제 환기가 아닌 온도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환기가 이루어져 돈사로 유해한 병원균이 투입되지 않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이처럼 철저한 환기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 발생을 차단하고, 사료효율도 높여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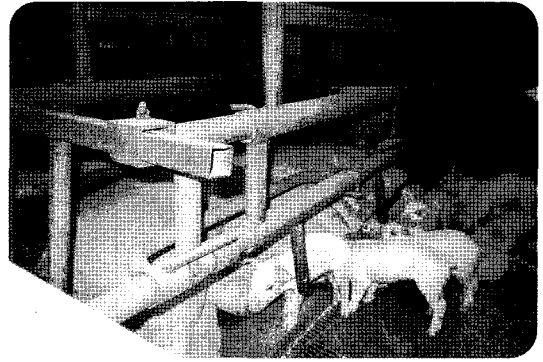
이계운 사장은 "무동력 환풍기를 사용하니 아침에 돈사에 들어가도 불쾌한 냄새를 맡는 일이 거의 없으며, 유해가스를 뽑아내는 효과도 뛰어난 것 같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경제적이다."고 강조했다.

- 알루히터와 냉난방 열교환기 활용으로 적정 온도 유지

금형농장은 겨울에 보온을 위해 모돈사에 2대, 분만사에 1대의 심야보일러와 알루히터를 설치해 겨울철 난방을 해결하고 있다. 스팀 형식으로 보온이 되기 때문에 먼지 발생이 없으며, 산소도 소실되지 않고 돈사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부인 지영자씨는 초기 설치비용이 다소 고가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경유 열풍기를 이용할 때 연 800만원의 난방용 유류비용이 들던 것에 비해 현재는 전기료가 연 100만원 수준으로 비용절감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울러 냉난방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다. 여름에 냉난방 열교환기를 통해 지하수를 냉각해 주면 돈사내 설치되어 있는 냉방시설을 통해 모든 개체마다 시원한 공기를 유입해 주고 있어 돼지들이 헐떡거리지 않는다.



▲ 금형농장 분만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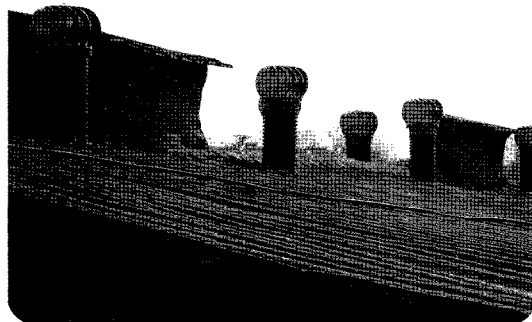


▲ 금형농장 자돈사 모습

- 깨끗한 물 공급과 철저한 소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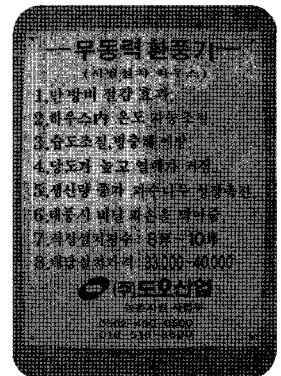
금형농장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1년에 2번의 수질검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돼지에 공급해 주고 있다. 2004년 4월부터는 정수기를 설치해 더욱 청결한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각 돈사마다 소독기를 갖추어 놓고 하루에 한번씩 철저히 소독을 해나가고 있다. 농장 출입구에 마련된 차량소독기의 경우에 좋은 열선을 사용해 동파를 방지하는 등 차량 출입시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무동력 환풍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기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강제 환기가 아닌 온도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환기가 이루어져 돈사로 유해한 병원균이 투입되지 않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금형농장은 농장으로 들어오는 길에서부터 다양한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심어놓는 등 조경을 잘 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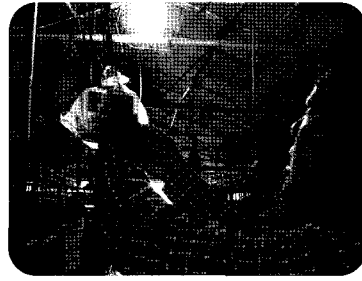


높은 A·B등급 출현율과 지급률로 수익 극대화

금형농장은 경기도양돈연구회 회원으로 2000년도부터 지역 브랜드인 아이포크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 철저한 사양관리 및 환경관리와 함께 브랜드 출하를 통해 A·B등급 출현율이 높아지고, 규격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형농장은 1개월에 6번, 45두씩을 출하하고 있다. 월 평균 출하두수는 270두, 연간 출하두수는 3,300두 정도에 이르고 있다. 평균 출하체중은 110kg에 맞추고 있으며, 출하일령은 170일 전후로 맞추어 탄탄하면서도 마블링이 제대로 된 품질 좋은 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아이포크로 출하하는 금형농장은 지육가격 3,000원 이상일 때는 70%, 2,500~3,000원일 때는 71%의 지급률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받고 있어 가격 변동에 큰 차이 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A등급 돼지에 대해서는 두당 5,000원, B등급은 두당 3,000원의 보조금을 별도로 받고 있어 이점이 크다. 또한 규격화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패널티 제도도 적용하고 있어 C등급의 경우 등지방이 30~32mm, 33~34mm, 35mm 이상일 때 두당 5,000원, 10,000원, 20,000원의 패널티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도체중 역시 75kg 미만이거나 95kg을



돈사에 적합한 온도 설정을 해 놓으면 돈사 내부의 온도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환풍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초과하면 오히려 10kg 감량을 하고, 100kg을 초과하면 30kg을 감량하여 정산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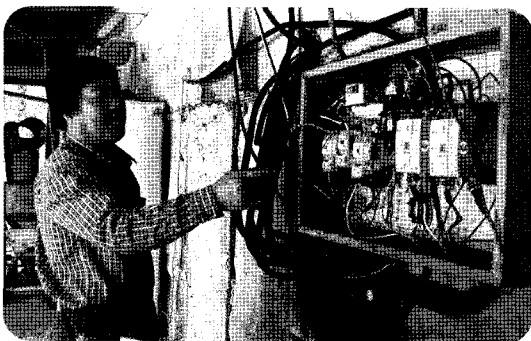
따라서 금형농장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양관리로 돼지를 잘 길러내 출하체중 110kg(도체중 87~88kg), 등지방두께 23~24mm의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월 27일 출하내역을 살펴보면 45두 출하하여 A등급 32두, B등급 9두로 A·B등급 출현율이 91%를 넘고 있으며, 평균 출하체중은 108kg, 등지방두께 24.2mm로 나타나고 있다.

고품질의 위생적인 돈육 생산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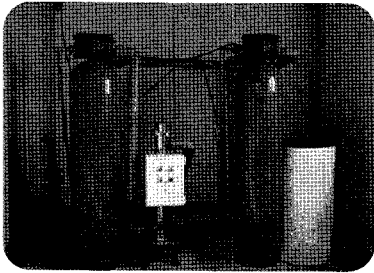
금형농장은 고품질의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돼지고기의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사료와 종돈을 통일시키고 있다. 다비육종의 종돈과 AI를 통해 돼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도드람양돈농협의 무항생제 사료를 돼지에 공급해 주고 있다.

또한 170일령에 110kg 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양(사료)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 규격돈 출하로 육색은 담회홍색으로 선명하며, 지방은 백색으로 마블링이 잘 되어 있고, 탄력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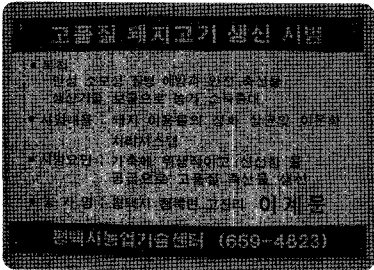
아울러 인삼, 녹용, 당귀 등의 한약재로 구



▲ 금형농장 이계운 사장이 양돈장내 온도조절 및 환기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농장에 설치된 정수장치. 돼지에게도 신선한 물 공급이 중요하다.



▲ 돼지에 위생적이고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성된 첨가제를 사료 5톤당 60kg의 비율로 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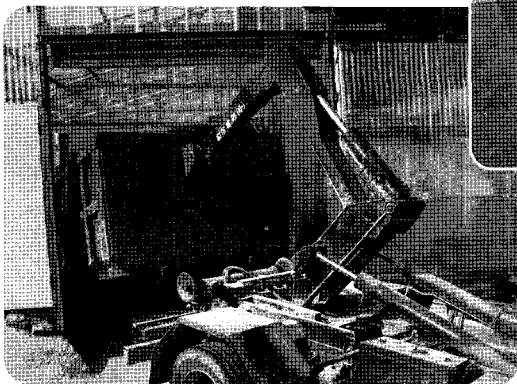
한약재 첨가로 돼지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으며, 부드럽고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좋은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무항생제 사료 공급과 더불어 백신 프로그램 적용 이외

에 특별히 항생제 주사는 하지 않아 위생적인 돈육 생산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필요시에는 봉침을 이용해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돼지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금형농장은 돼지 입장에서 항상 생



▲ 퇴비로 처리하기 위해 분을 수거하고 있는 장면



▲ 농장 출입구에 마련된 차량소독기. 차량 출입시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하고 연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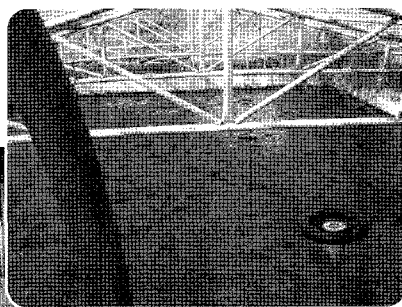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와 더불어 적정 온도 및 습도유지와 환기관리를 해주어 돼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평균 이유두수는 10두가 넘으며, 이후 폐사가 거의 없다.

이계운 사장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좋고 맛 좋은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잘못된 시설은 바로 고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등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고, 적절한 영양관리를 해나감으로써

규격돈 출하와 함께 높은 A·B등급이 나타나 수익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계운 사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미생물제재를 사용하여

악취도 저감시키고, 분노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등 정직하게 양돈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양돈**



▲ 금형농장에는 액비저장조가 비치되어 있어 노는 액비로 처리하고 있다.